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4~10/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2	회집본 무량수경 : 유쾌하고 풍성한 정토세상	도암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 / 현천스님	선요가
4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5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6	낡은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7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8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9	한권으로 일목 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도후스님	운주사
10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책세상

'방거사어록' 全 3권 완역



방거사어록 · 시역주
강승욱 역주 / 운주사 펴냄
2만7천원



저자 강승욱.

어록 · 시게 · 찬문 전권 번역
〈만신속장경〉 제 69책 저본
꼼꼼한 번역, 방대한 주(註)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중국의 유마거사로 불리는 방거사의 어록과 게송을 모아 엮은 〈방거사어록〉의 번역본이 출간됐다.

방온(龐蘊)이 본명인 방거사는 중국 당나라 때 사람으로 불교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선사들과의 법거량에서 출 · 재가의 경계를 무색케 하는 탁월함을 보여준 그는 선불교는 물론 불교사 전체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인물이다.

〈방거사어록〉은 〈속장경〉에 상 · 중 · 하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상권은 어록으로 되어있고, 중 · 하 두 권은 시게(詩偈)와 찬문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상권(어록)만 소개되어 중 · 하권의 시게와 찬문의 번역은 볼 수 없었다. 이번 역주서는 어록과 시게, 찬문 모두를 번역한 것으로, 방거사의 진면목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책은 2014년 중화전자불전협회에서 전산화한 〈만신속장경〉 제69책 〈방거사어록〉을 저본으로 삼았다. 현존하는 판본 중에는 명나라 숭정 10년(1637)에 간행된 것(이하 숭정본)이 가장 오래 되었는데, 이번 책에서는 각 문장마다 숭정본과 대조하여 주(註)를 달았다. 또한 어록 그 자체로는 숭정본이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일지라도 어록에 담겨 있는 각각의 개별 내용들은 이보다 역사적으로 앞선 전적(典籍)들에 다수 산재되어 있어 각 단락 끝에 하나하나 대조하여 주를 달았다. 숭정본보다 앞선 전적들로 대조한 것은 〈경덕전등록〉(이하 전등록) · 〈조당집〉 · 〈선문염송집〉이다. 또한 이번 책은 이리야 요시타카의 〈방거사어록(양기봉 역, 1995, 김영사)〉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 저본에는 없는 것들(상권의 어록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했다(상권 말미에 보유라는 이름으로 수록했다). 그리고 부록으로 저본에는 없는 무명자(無名子)의 〈방거사 어록 · 시 · 송 · 서문〉과 〈조당집〉과 〈전등록〉에서 전하는 거사의 이야기 전부를 번역해 수록했다.

이번 어록(방거사 어록 · 시의 통칭)에는 여타의 선어록들과는 다른 것들이 있다. 특히 거사는 승려가 아니기 때문에 선사들의 어록에 있는 상당법어와 대중법문이 없다. 상당법어와 대중법문이 없기 때문에 거사의 핵심 사상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책은 거사의 시(게송)를 많이 전하고 있다.

또한 거사는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학하던 학인들(제자)과의 기연어구(機緣語句)가 없다. 석두 · 마조와의 만남을 제외한 어록의 대부분이 당대의 이름난 선사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여타의 어록들은 주(註)와 빈(賓)이 분명하다. 또한 선사들의 감변(勘辨)을 통해 그간의 노력을 인가 받거나, 가일층 정진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다반사다. 하지만 이번 책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주와 빈이 호환하며 서로 법담을 즐길 뿐이다.

역자는 앞서 출간한 〈원오심요 역주〉와 〈마조어록 역주〉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책 역시 번역은 하되 해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 이유는 어록을 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해석을 문자화한다는 것은 어록 전체를 사구(死句)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역자는 "생각이나 마음을 말로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또 다시 글로 전한다는 것은 한정에 한정을 더할 뿐이다. 그래서 거사는 물론 역대의 선사들 모두가 어록을 부처의 열반 이후 부처를 보고 싶은 중생들의 간절한 마음에 의해 불상이 만들어졌듯이 선사들의 제자가 스승에 대한 사모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간의 기억과 외움을 간결과 절제의 방법으로 문자라는 형식을 빌려 세상에 나온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한다.

선가의 대화에는 일체의 머뭇거림이 없다. 전광석화와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과 할이 쏟아져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록은 바로 그대로 단숨에 읽어 내려가야 한다. 역자는 "설령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모르는 대로 읽어야 한다. 단숨에 읽어 내려가면서 알면 아는 대로 "아!"하면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읽고, 그러고 나서 "이게 뭐지?" 하며 참구하면 된다. 그래야 진정한 공부가 될 것이다. 이번 책이 머뭇거림 없이 바로 읽어 내려감에 단도직입하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원문은 원래대로 역자가 인용부호를 붙였고, 번역은 가능한 한 바로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문 단어의 뜻과 여러 가지 관련된 주(註)를 상세히 달았다. 역자는 거사 자신이 전하고픈 생각과 견해, 사상 전반을 시게를 통해 알리고자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게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위해 다소 기초적인 것이라도 불교사전의 힘을 빌려 번역해 수록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게송)의 제목(어록 편에 실려 있는 것)은 알려진 그대로를 따랐으며,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새 옷을 입고 세상에 선보이는 것(중 · 하권의 시 149수 가운데 다수)들은 역자가 임의로 첫 구나 혹은 중요 구를 가지고 임의로 정했다. 이번 책은 가능한 한 중화전자불전의 편집을 그대로 따랐으며 원문의 문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철저하고 꼼꼼한 번역, 주요 한자 및 단어에 대한 풀이, 그리고 원문의 이해를 돕는 방대한 주(註)에 그 특징이 있다. 특히 각종 경전과 선어록을 토대로 한 상세한 주석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거사는 그 유명세와는 달리 생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것이 없다. 형주 사람이라는 것, 말년에 양양에서 살았다는 것, 아들과 딸이 있었다는 것, 마조를 만났다는 것 등 그나마 전해지는 그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추론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거사는 누구인가' 편에서 소개하고 있다.

저자 강승욱은 남산 정일(南山 正日) 선사를 은사로 불법에 귀의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인도철학과 대학원을 수료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교관, 5사단 군종참모를 역임하였고, 육군대학,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불법을 홍포했다. 2010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전역 후, 지인들과 경전 및 선어록 강독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에 원오선사의 〈격절록(擊節錄)〉을 연재(2019년)했으며, 펴낸 책으로 〈원오심요 역주〉, 〈마조어록 역주〉가 있다.

지구 생태위기, 불교는 어떤 답을 줄까?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
데이비드 로이 지음 / 민정희 옮김 / 불광 펴냄 / 1만 9천원

종교와 과학이 때로는 갈등하고 화합하며 오늘의 인류 문명을 있게 했다면, 위기의 시대에 불교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책은 현대 문명의 가치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시대적 부름에, 불교철학자 데이비드 로이 박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불교 행동철학을 다룬다.

'에코다르마(Ecodharma)'로 명명된, '생태불교'의 핵심은 바로 '궁극의 깨달음은 사회적 실천에 있다'라는 데 있다. 우리에게 당면한 생태 · 사회적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이 책은,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하는 명저이다.

선 수행자이자 사회적 참여불교 활동가로 서구에 잘 알려진 데이비드 로이는 '연기법(緣起法)'과 '공성(空性)'에 대한 이해, 즉 깨달음을 "우리가 다른 이들이나 지구와 분리되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서 사회구조적인 고통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내면(명상) · 외형(행동주의) 수행 실천하는 21세기 생태보살(eco-bodhisattva)도 소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회적 · 집단적 원인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개인의 변화라는 길과 사회의 변화라는 길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세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각성이 꽃을 피우는 방법이고, 명상과 같은 사색적 수행은 우리 행위의 바탕이 되어 그것을 영적인 길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바로 에코다르마이다. 이는 불교 전통이 최근 전개하는 새로운 용어로, 생태적인 관심(eco)에 불교의 가르침과 그에 연관된 영적 전통(dharma)을 결합한 것이다.

에코다르마는 우리가 생태위기를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의 측면들을 탐색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수행하는 방식에서 에코다르마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이 책은 자연에서 수행하고, 불교적 가르침의 생태적인 시사점을 탐구하며, 오늘날 요구되는 생태적 행동주의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참여는 개인의 정신적 평화에 초점을 맞추어 온 전통적인 가르침 때문에 많은 불교인들에게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사회적 행동에 전념해온 사람들은 피로와 분노와 우울 그리고 에너지 소진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면(명상)과 외형(행동주의)의 두 가지 수행이 조화롭게,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두 가지 수행의 결합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실천, 참여하게 한다. 이러한 행동주의는 또한 명상하는 이들이 자신의 심리상태에 사로잡히는 덫을 피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세상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태보살(eco-bodhisattva)에 의해 길러진 통찰력과 고요함은 불교행동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지탱해주는데, 그것은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다. (절망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태도)보통 무책임한 태도 혹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보살도이다. 결과가 행위를 결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중요한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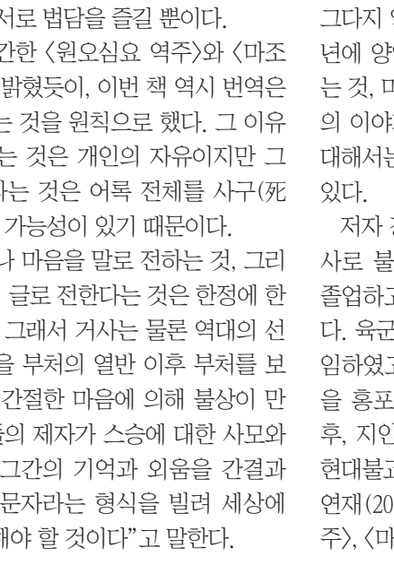
10·27 법난 40주년 시집

군화에 짓밟힌 법당

그 엄혹했던 시대의 생생한 증언!!

여보! 선상님! 아프고 한없이 아파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다.
참고 참다 죽을 힘을 다해
비명의 소리를 질러본다.
그럴수록 가해오는 채찍은
더더욱 더해온다.
나를 마치 돌덩이 쇳덩이로 알고
치고 또 족친다.

-혜성 스님의 법난 시 〈아파 죽겠어요〉 중에서



혜성慧惺 스님 지음 / 212페이지 / 10,000원

동쪽나라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